

배경

- * 계몽주의와 권위의 집의 붕괴: 성서와 전통에 의지하지 않는 종교(신앙)이해
칸트: 도덕적 이해(도덕), 슐라이에르마허: 절대존의 감정(직관), 헤겔: 절대정신의 발현(지성)
- * 과학혁명과 과학적 사고: 과학적인 방법(경험적 증거와 법칙성의 발견)의 신뢰성
- * 식민지 지배를 통한 서구의 팽창과 아마추어 인류(민속)학자들의 자료 축적
종교(religio)
relego, relegere(키케로): 모으다, 돌이켜 생각하다 -세상을 보는 세밀한 눈
religo, religare(아우구스티누스): 묶다, 엮매이게 하다.
pietas(칼빈): 경건함
앞서 언급한 변화와 맥락의 확장으로 인한 종교개념의 변화와 확장
- * 진화론과 사회적 혹은 지적 진화론

1장 정령숭배와 주술

I.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Edward Burnett Tyler, 1832-1917) - 정령숭배(animism)

-주요저작

『아나후악: 멕시코와 멕시코인, 고대와 현대』(*Anahuac: or Mexico and the Mexicans, Ancient and Modern*, 1861)

『인류 초기역사와 문명 발달의 연구』(*Researches into the Early History of Mankind and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1865)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 1871)

1. 『원시문화』

1) 배경

- 자연과 인간사회의 발달에 관한 관심

- 찰스 다윈, 『종의 기원』(*Origin of Species*) →

세계, 문화, 사회를 기원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됨

- 막스 밀러의 비교문화학 - 언어적 습관과 단어의 파생에 근거한 종교의 기원과 발전연구

※타일러는 민속학(ethnology) 혹은 민속지학(ethnography)적인 접근을 선호

2) 목적과 가정

- 문화의 법칙

인류의 심적 통일성 혹은 일치의 원칙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적인 진화 혹은 향상

*문명은 인간 상승(ascent of man)의 이야기이다.

3) 잔존의 원칙(doctrine of survivals)

사회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화적 잔재(leftovers)가 있다.

이 잔재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인류의 심적 일치 때문이다.

4) 인간문화의 양상

주술의 관행 - 인간의 행동과 자연 사이의 논리적 유사성 발견

신화 - 자연과 인생의 사실들에 대한 비유와 비교를 사용한 설명

고대인 나름의 자연, 사회,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결과가 주술과 신화이다.

5) 종교의 기원

- 종교: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믿음”(belief in spiritual beings) → animism
- 고대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원시문화와 현대 문화에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교의 본질과 정의를 animism으로 주장함.

6) 종교적 사고의 성장

- 정령에 대한 사고의 성장: 다신교에서 유일신교로의 발전
- animism의 정점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7) 정령숭배의 쇠퇴와 사고의 진전

-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었던 종교는 이제 과학으로 대체된다.
- 과학 시대의 종교는 구시대의 잔존물이다.

II.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 1854-1941)

『황금가지』(*The Golden Bough*, 1890-1915)(12권)

- 타일리의 영향 『원시문화』 - animism
- 윌리엄 로버트슨 스미스(William Robertson Smith)의 영향 - totemism

『셈족의 종교』(*The Religions of Semites*, 1890)

** 종교학과 인류학 사이의 상호작용

1. 『황금가지』

1) 주술과 종교

- 공감의 주술(sympathetic magic)

모방(imitative) 주술: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에 영향을 미친다 (물뿌리기와 비)

접촉(contagious) 주술: 부분이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부두교의 인형)

** 주술사는 보통 권력을 가진다.

** 주술은 허위 과학이다.

- 종교

타일리: 종교와 주술의 유사성을 강조

프레이저: 주술과 종교의 차이점을 강조

*주술: 자연세계 배후에 있는 원칙에 의지한 행위

*종교: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기도

→ 실제 삶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는 종교가 주술보다 더 발전된 형태이다.

2) 주술, 종교, 왕의 신성

- 주술 → 종교

- 주술사-왕 → 사제-왕

- 주술과 종교의 결합/ 주술사-왕과 사제-왕의 결합

** 인격적 권력과 주술적 권력의 결합(왕= 신격 존재이자 주술사)

3) 초목의 신들 - 주술-종교적 사고방식의 예들

- 계절 제례들(seasonal cults)

- 죽음과 재생의 제의

- 토템과 속죄염소

4) 나무의 영, 불의 제전, 발더신화

“태초의 인류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충분히 합리적이었던 생각의 체계를 갖고 삶을 살았다... 다이아나 신전의 의례와 로마인들의 숲의 왕에 대한 전설 배후에는 신으로 간주된 사람의 의식적 살해, 인간 희생이라는 잔인한 시련이 깔려 있다.”(p. 85)

cf. Rene Girard.

5) 결론

- 현장 연구가가 아닌 책상물림 학자의 연구(대영제국 황금기의 영향력)
- 주술 → 종교 → 과학

III. 분석

- 서구 팽창기에 수집된 광범위한 자료 분석을 통한 종교 일반이론의 등장
- 기원과 진화의 패러다임
- 주지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종교이해 - 원시의 외로운 사상가(현대적 학문의 투사?)

IV. 비판

- 자료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반화
- 지적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는 자료의 존재
- 주지주의 이론의 한계 - 사회적이고 제의적 요소의 적절한 의미를 퇴색시킴

2장 종교와 인격: 지그문트 프로이트

I. 프로이트

1. 배경: 프로이트의 생애와 업적

- 정신분석학의(Psychoanalysis) 창시자
- 『꿈의 해석』(*The Interpretation of Dreams*, 1900)
- “비엔나 정신분석학회”

오토 랑크(Otto Rank), 카를 아브라함(Karl Abraham),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
카를 융(Karl Jung), 에르네스트 존스(Ernest Jones)

-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The Psychology of Everyday Life*, 1901)
- 『토템과 터부』(*Totem and Taboo*, 1913)
- 『정신분석 강의』(*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1916-1917)
- 『환상의 미래』(*The Future of an Illusion*, 1927)
- 『모세와 유일신교』(*Moses and Monotheism*, 1938)

2. 프로이트의 이론: 정신분석과 무의식

- 의식 < 전의식(기억, 저장된 지식) < 무의식(욕망, 기억, 기본적 욕구, 억압된 감정...)
- 억압된 감정이 무의식으로 밀려가게 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 문제가 생긴다.
- 이런 억압된 감정은 꿈의 형태로 누출된다

3. 인격의 갈등

- 에로스(eros): 에고 본능(배고픔), 리비도(성욕) - 삶을 지속하려는 충동
- 타나토스(thanatos): 삶을 끝내려는 충동 (cf. 타노스)
- id, ego, superego

id: 자연 본성 그대로의 충동

superego: 외부적 영향의 집합체

ego: 현실원리, 선택의 중심, 균형추/ 이드, 수퍼에고, 현실의 요구를 조화시킴

4. 유아기의 성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 유아기의 성

구강기(18개월) - 항문기(3세) - 남근기(3-6세) - 무성단계(6살 이후) - 성욕기(10대)

**인류문명의 역사와 개인 성장 사이의 유비

-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근기에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아버지를 경쟁자로 인식

→ 성의 억압 → 거세 콤플렉스 → 성적 환상

** 충동의 억압(자제)와 문명

5. 프로이트와 종교

종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강박신경증”이다.

1) 『토템과 터부』(1913)

- 생물학적 진화론 → 지적 진화론(어린아이→어른/ 고대문명 →현대문명)
- 토템: 특정 동물 혹은 식물과 부족을 연결
- 터부: 접근 금지된 사람이나 물건 ex) 근친상간, 토템을 먹는 것,
- 토템과 터부의 관습
- * 태초의 군집 생활: 강력한 남성이 지배하는 여자와 아이들의 확대가족
- * 아들들의 부친살해:
집단의 안전을 위한 욕구와 억제된 성적 충동→부친살해→해방감&죄책감→아버지 대역과 상징으로서의 토템 동물 → 토템 숭배 및 토템 살해 금지 명령 → 근친상간 금지
- * 토템 희생 제사의 이중성 (태초의 살인 재연)
토템에 대한 자신들의 숭배표시 vs 오이디푸스 충동을 부인하여 생기는 좌절감 해소
- * “토템 종교는 자식으로서의 죄의식에서 생겨났는데, 그런 감정을 완화시키고 아버지에게 대한 뒤늦은 복종으로써 그를 달래려는 시도에서였다. 그 후의 모든 종교는 그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본다.”(p. 127; *Totem and Taboo*, p. 13)

2) 『환상의 미래』(1927)

- 자연의 위협→ 문명의 탄생→ 자연의 위협과 문명의 억압 사이에서 불안한 인간
- “종교적 믿음은 외부세계에 하느님을 투사하는데, 그 하느님의 능력은 자연의 공포를 일소해 주고, 죽음 앞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며, 문명사회가 강요하는 정신적 제한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우리에게 보상해준다.” (p. 129)
-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이런 의미에서 종교적 믿음은 환상(illusion)
- 종교적 가르침은 인류의 아동기에 적절했던 믿음들과 규칙들
- 종교는 인간의 보편적 신경강박증의 잔재로서 종교를 떠나는 것이 성숙한 성인이 되는 것

3) 『모세와 유일신교』

- 모세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자이며 이집트에서 태양신 아텐을 유일한 신으로 모실 것을 주장했던 파라오 아크나톤의 추종자였다.
- 광야에서 모세의 추종자들은 모세의 신을 저버리고 모세(신적 존재)를 죽였다.
- 야훼신은 가나안 정복 당시 전쟁의 신이다.
- 모세의 믿음: 순수한 영성과 도덕 vs 야훼 신앙: 동물 제사
- 예언자들: 모세를 따르는 유일신교적 예언자들 → 그리스도교의 탄생
- 신경증의 사례와 유대교 역사의 공통점: 억압된 것의 재발
- 유대교에서 모세 살해는 태초의 아버지 살해와 동일한 위치
- “『토템과 터부』에서는, 태초의 군집 생활에서의 반역이 사랑과 공포라는 양면 감정의 결과였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 유대교는 그 아버지를 이상화해서 사랑의 신으로 만들고, 그를 살해한 것에 대한 죄의식을 억압하려는 충동을 상기시킨다. 그리스도교는 똑같이 사랑과 죄의식의 혼합을 의식하지만, 속량의 필요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반응한다. 그리스도교의 중심적 사상가인 유대교 랍비 바울이 신학적 틀을 잡은 것처럼, 그리스도교 신학은 아버지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첫아들의 형태로, 역사 이전 시대 군집 생활에서 첫 아들이 범했던 원죄를 속량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하느님이다.”(p. 138)

II. 분석

- 프로이트의 신경증으로서의 종교 vs 융의 집단 무의식으로서의 종교
- 과학 시대에 종교가 지속하는 이유를 심리적 기능에서 찾음(기능주의적 환원주의)

III. 비판

- 비유신론적 종교 혹은 유일신교가 아닌 종교에는 적용할 수 없다.
- 개인의 심리적 성장과 사회적 집단 사이의 유비는 적절하지 않다.
- 최초의 부친살해와 유대 역사에 대한 재구성에 대한 적절한 자료나 근거가 없다.
- 종교를 신경증으로 보는 것 자체가 프로이트 종교 이론의 전제이다.
- 정신분석학 자체에 대한 여러 비판.